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관과 무용의 발전

1.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관

- 고대로의 회귀 → 그리스, 로마 문명의 부활 (합리주의적, 과학적, 사실주의적)

- 예술가들의 능력과 재능 → 신으로부터가 아닌 인간 본연의 천재성과 훈련에 의해 발달하는 것으로 인식

- 아카데미즘 (Scademism) → 예술의 권위 회복, 모방의 과제,
  자연의 이상화 (Idealism)

- 매너리즘 (mannerism) → 16세기 후반에 등장

→ 고전적 아름다움과 조화를 추구하는 예술에 대한 반기
→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것 보다는
예술가들의 마음속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강조
→ 기형적 자세 (ex. 파르미지아니로의 긴목의 성모),
불안정한 구도, 모호함이 강조
→ 초현실주의의 등장을 예고

2. 예술 후원자와 예술의 특징

- 예술과 예술가들의 지위 상승 → 예술 후원자들의 영향
  (대표적 후원자: 메이치 가)

- 예술가들의 개성이 인정 받기 시작

- 작품을 통해 예술가 개인의 자질을 드러냄

- 종교적 색채를 띄기 보다는 후원자들의 구미에 맞는 작품 등장

- 작품 대상의 정확한 묘사 강조

- but,

3. 르네상스 시대의 춤의 발전

- 인간주의, 인본주의 성격
- 이탈리아 피렌체 중심으로 무용 교사 직업 등장
- 귀족의 필수 과목
- 무용의 지위 상승
- 무용 용어의 체계화
- 다양한 스타일의 스텝 발달

4. 르네상스 무용의 종류

- 민속무용 →

- 궁중무용 →

5. 궁중 무용의 움직임 특징

- 네 가지 새로운 리듬의 춤 (음악): 바스 당스 (Bassa Danza) →
  콰테르나리아 (Quaternaria) →
  가장 경쾌한 또는 높은 무용 이라는 살따렐로 (Saltarello) →
  가장 빠른 리듬인 피바 (Piva)

- 스텝 →

- 상체의 움직임 →

- 공간의 사용 →

6. 궁중무용의 종류

1) 바스 당스 (Bassa Danza)

- 15 – 16세기 중엽에 걸쳐 프랑스의 궁정 (부르고뉴)에서 애호된 춤

2) 살타렐로 (Saltarello)

- 15-16세기 이탈리아 궁정에서 유행

3) 가야르드 (galliard, agliarda, Galliarde)

-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춤

4) 파반느 (Pavane)

- 16세기에서 17세기 초까지
 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춤

5) 마주르카

- 12세기 경부터 존재했으나,
  1600년대에 궁중무용으로 알려짐

7. 르네상스 시대의 무용의 의의

- 즐기기 위한 춤으로의 발전
- 무용 용어가 생겨남
- 초기 궁중발레의 형태를 가짐
- 무용 교사의 직업이 생겨남
- 무용의 지위 향상
- 다양한 리듬의 움직임과 스텝의 발전

발레 (Ballet)의 명칭과 유래

* <춤을 추다>라는 뜻의 이탈리아 어 발라르(ballare) +
장에서 추어지는 춤을 지칭하는 발로(ballo)

→ 발레띠(balleti) → 발레(ballet)

* 이탈리아 사교무용인 궁정춤에서 유래

* 카드린느 드 메디치로 인해 프랑스로 유입

- 최초의 극적 발레 → 1581년 창작된 왕비의 희극발레(Le ballet comique de la Reine)

→ 안무자이자 총 지휘자: 발타사르 드 보조외
(Balthazar de Beaujoyeux)

→ 제작 동기: 앙리 3세의 처제 결혼식 축하

→ 막과 무대배경이 등장, 관객과 무대의 분리,
무대에 집중, 연극적인 면을 갖추고 있었음.

→ 내용: <오딧세이>에서의 마녀 시르쎄의 이야기.
시르쎄를 제압하는 신 쥬피터가 앙리 3세의 상징적 존재.